

사상 초유 '준예산' 편성 사태 오나

■ 예산 정국 시계제로

與 "4대강 예산처리 협조를"
野 "MB 영수회담 수용하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연말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예결위 회의장을 나흘째 점거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민주당 설득에 실패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 단독 처리할 태세다.

파국을 막기 위한 여야 접촉은 이뤄지고 있으나 4대강 예산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 점점 모색이 결코 쉽지 않은 형국이다.

강박 준설이나 보설치 등의 재고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4대강 사업의 본질이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파국을 막기 위한 '대통령+여야대표 회담'도 청와대에 이어 한나라당 마지막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지난해 연말의 국회 폭력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또 정부 쪽에선 여야 대치 격화로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장 점거능성을 이어가는 한편 4대강 예산 문제를 풀기 위한 영수회담 개최를 압박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에 4대강 문제에 대한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일대 담판이 필요하다"며 영수회담 수용을 촉구한 뒤 "타협하고 싶어도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극한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 개최 또는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 삭감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한 예결위 회의장 점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전날부터 자체적으



20일 오후 국회 정책위 회의실에서 심재철 예결위원장과 김성식 의원이 각각 전화를 걸거나 예산 검토자료를 보고 있다. <왼쪽> 20일 오전 예결위 회의장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전혜숙, 이춘석 의원 등 나흘째 점거 능성중인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예산안 심의작업에 착수한 것을 두고 '날치기 수순 밟기'라고 공세를 취하며 단독처리 가능성을 경계했다.

우체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안을 밀실에서 자의적으로 수정, 조작하는 것은 반민주적 폭거"라며 "당문을 걸고 예산안 불법처리 기도를 막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대통령과 여야대표 3자 회담'과 관련, "예산안과 4대강 문제를 대통령에게 전기하려는 3자 회담은 국민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예결위 회의장을 점거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본질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대운하와 연장선상에서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대통령이 세 번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운하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강

조한 만큼 야당은 약속대로 4대강 사업 예산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동준 대표는 민주당의 국회 예결위 회의장 점거와 4대강 예산삭감 주장이 철회돼야 3자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회답이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한나라당은 또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한 '비상체제' 가동에 들어가 예결위원 29명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될 경우 한나라당이 오는 28~29일 예결위, 30~31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예산부수법안 27건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 사정도 이 시나리오에 무게를 더해 주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ju.co.kr

수사기록을 정리한 뒤 성탄연휴가 시작되는 25일 이전에 한 전 총리를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차관급부수기로 조사받은 한나라당 현경 병 의원도 이번주에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당 공성진 의원은 이르면 22일께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한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서둘러

/연합뉴스

마무리도 편역여다/박원 뮤진기 '김영' - www.kimyoung.co.kr

전남대편입 6주완성 문제풀이

대화만입니다 거창 말이 시가는 것

김영 대편입

아직 없는 트라이슈머 시드방수!



150-1062-5111-0444

영 매력한우 맛있는 직판장

